



5면

'소통과 신뢰로, 시민과 함께하는 완산' 구현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음 11월 26일) 제389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북 1조 펀드, 지역경제 희망 엔진

### 비수도권 최초 누적 1조원 돌파... 투자 생태계에 '활력' 단순 자금 지원 넘어 고용 창출·매출 증대 등 효과 뚜렷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누적 벤처펀드 1조원 시대의 새 역사를 썼다. 단순한 수치 달성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심상치 않다. 전북의 펀드가 지역 기업에는 '성장의 사다리'로, 수도권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며 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역 창업의 한계를 넘어 기술력에 날개를 단 대표 사례로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기업 (주)이에스피(대표 박정권)가 꼽힌다.

전북에서 태동해 도 펀드의 지원으로 도약한 이 기업은 20억원의 도 펀드를 포함해 총 55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현재 확보한 R&D 자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 성장이 지역의 기회로 이어지며 청년의 꿈을 담은 이야기도 있다. 이차전지 전문 기업 에너비배터리 솔루션(주)(대표 신상기)은 도 펀드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모델이다.

15억원의 도 펀드 투자를 받아 총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이 기업은 2022년 완주권에 공장을 설립한 후 전체 직원 70명 중 50여명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며 지역 경제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수도권 기업도 전북으로 향하고 있다. 그린바이오 분야의 (주)광세(대표 이

성준)는 전북 펀드를 마중물 삼아 익산에 공지를 틀고 글로벌 도약을 준비 중이다.

본사와 공장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전격 이전한 광세는 15억원의 도 펀드를 포함해 총 80억원의 투자 유치를 완료하며 양산 공장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에서 코스타까지, 연구소 기업의 비상도 펼쳐졌다.

전북 펀드 투자의 최고 결실은 기업 공개(PO)다. 군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차량 보안 솔루션 기업 (주)세카(대표 홍석민)는 10억원의 도 펀드 투자를 시작으로 총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난 12월 코스타 상장에 성공하며 전북 투자 생태계의 지력을 증명했다. 페스카로는 타타대우, 전북자치도 등과 협업하며 지역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1조원 규모의 펀드는 전북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 유치부터 상장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투자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투자 장벽을 낮추고 민간 투자가 더욱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디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현지 시간) 나라현 회담장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전북 국회의원 '삼각편대' 이재명 정부 성공 '기폭제'

### 민주 이원택 의원·한병도 원내대표·이성운 최고위원 이 대통령 당대표시절 정치적 생존·리더십 함께 만들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과 한병도 원내대표(익산), 이성운 최고위원(전주)이 함께 하는 전북의 삼각편대가 드디어 서해광일처럼 빛을 내기 시작했다.



이원택 의원, 한병도 원내대표, 이성운 최고위원

특히 이들 3인방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시절 정치적 압박과 사법 리스크 당내 갈등 등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던 시기에도 한결같이 곁을 지키며 공개적·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들로 평가되고 있다.

13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이성운 최고위원이 선출됨에 따라 이원택 국회의원과 함께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관통해 온 대표적인 '친명 핵심그룹'이 당내 권력 구도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지난 2020년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표의 민생·약자 중심 노선을 정책 전면에 구현한 친명계 핵심 실무형 인사로 꼽힌다.

농어민 정책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기본 가치와 철학을 현장 정치로 연결시키며 대표와 긴밀한 신뢰 관계를 형성해 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023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 구상과 당 운영 방향을 실질적인 전략으로 설계해 온 최측근 참모로 분류된다.

신기 국면과 당내 주요 국면마다 이 대표의 판단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며 '친명 전략 라인'의 핵심 축을 담당해 왔다.

이성운 최고위원은 지난 2024년

당 영입 이후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가장 거센 공격을 받던 시기에 가장 선명한 목소리로 대표를 엄호해 온 강성 친명 인사로 평가된다.

공개 발언과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는 데 앞장서며 친명 진영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들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존과 리더십을 함께 만들어온 핵심 축인 그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이 당 지도부 전면에 배치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군 통합과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산적한 전북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윤활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우선 도내출신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성운 최고위원이 선출됨으로써 전북 정치권의 입지가 강화됐고, 나아가 이재명 정부 정권대 민주당호가 순항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원택 의원은 "향후 도정 4년은 전북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시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와 강력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각별한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만큼 지역을 위해 합차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LH 신축 매입임대 실태조사, 처벌만은 아니다" | 김윤덕 국토부장관, 39개 산하기관 업무보고서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고가 매입 의혹 조사와 관련, "조사 결과가 따라 훈·벌 사람은 훈·벌 받고 상·출 사람은 상·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39개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의 뜻은 발본색원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다. 이번 신축 매입임대 조사를 통해 칼을 대야 할 건 벌 것이고 상을 줄 사람이 있다면 상을 주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1억원



짜리 집을 지어 LH에 임대주택용으로 1억2,000만 원에 판다는 소문이 있다. LH를 호구 삼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LH 사장 직무대행인 조정숙 주거복지본부장은 "국토부와 LH가 합동조사를 4월까지 진행한다"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수도권에서 신축 매입임대 4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또한 LH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 "LH가 짓는 아파트가 질이 떨어지지 않는 좋은 집이란 인식을 만들어내는 게 당면한 LH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당부했다.

그는 "LH 아파트하면 우리 젊은 시절 주공아파트가 생각난다. 싸고 안전한 좋은 (이미지)"라며 "이 인식을 바꿔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가철도공단 업무보고에선 수서발고속철(SRT) 좌석 부족과 평택~오송 구간 철도 병목 문제를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장관인 저도 도대체 고

속철도 예매가 안 된다. 세종에서 용산, 서울역을 입석을 탄다"며 "표를 구하기 힘들고 주말엔 더 심해진다. 평택~오송구간 병목 문제도 북복선 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수서~평택간 2복선화 계획 반영을 건의하자, 김 장관은 "대책을 세워서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39개 기관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안전 등 3개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미래세대를 위한 출생 축하금을 확대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지급대상자		2025년	2026년	증감
출생 축하금	첫째아	30만원	100만원	+70만원
	둘째아	50만원	100만원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100만원	-
자녀 양육비	셋째아 이상	120만원 (월10만원)	120만원 (월10만원)	